

“안전·효율적 공정 관리 기술인 되고파”

‘제1기 기특한 명장’ 여수석유화학고 3학년 한준희군

“앞으로도 꾸준히 자기 계발에 힘쓰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확보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정 관리 기술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제1기 기특한 명장(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 제도)’에 선정된 여수석유화학고 3학년 한준희군의 소감이다.

30일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에 따르면 한군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기술진흥원의 ‘제1기 기특한 명장’ 행사 화공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더불어 여수석유화학고는 우수 학생을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특한 명장 우수 배출학교’로 이름을 올려 상장과 명패를 수여받았다.

기특한 명장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청년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 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요구돼 진입 장벽이 높았던 기존 대한민국 명장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

노동부 등 기술인재 발굴·육성 지원

위험물산업기사 등 8개 자격증 취득

학생·기술회원 유일 ‘화공분야’ 선정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디딤돌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군은 위험물산업기사를 기반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총 8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며 화학공정·안전관리 분야의 전문 역량을 길러왔고, 예방 중심의 화학 공정 기술자로 성장 가능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또한군이 선정된 화공분야는 학생회원과 기술회원 모두 포함하더라도 단일 분야 기준으로 유일하다.

한준희군은 “기특한 명장의 멘토링 교육을 통해 공정 안전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3학년 한준희군이 ‘제1기 기특한 명장’(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 제도) 화공분야에 선정됐다. 기특한 명장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청년 기술 인재를 조기 발굴해 숙련 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제공〉

고다.

주선태 교장은 “기특한 명장 제도를 발판으로 학생들이 기술인으로서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을 지속 배출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변화하는 사회·기업 환경에 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정재영 제2대 광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정재영(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2대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강기정 시장을 대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사장은 취임사에서 공사의 비전을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관광·MICE 허브’로 제시하고, 관광·MICE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광주관광공사 출범 후 지난 2년5

개월 동안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꿨던 광주를 선도하기 위해 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한편으론 조직 화합과 함께 광주관광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도 안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 공사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데 광주관광공사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신임 사장은 약 30년간 KBC 광주방송에서 기자·앵커 등으로 활동했으며, 광주·전남 기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교통공사, 백혈병 환아들에 기부금 전달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 서구 마륵동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성금 200만원을 (사)한국백혈병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전달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아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인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인사

광주시 ◇3급 전보 ▲복지건강국장 박정환 ▲여성가족국장 최경화 ▲기후환경국장 이상배 ▲인공지능산업실장 손두영 ▲경제창업국장 오영길 ▲인재교육원장 정영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문점환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주재희 ▲남구 부구청장 정석희 ▲북구 부구청장 이영동

◇4급 전보 ▲안전정책관 하경완 ▲자연재난과장 장광식 ▲관광도시과장 한승화 ▲자치행정과장 이수빈 ▲선임비서관 임대진 ▲총무과(교육)장 문길상 ▲회계과장 신창호 ▲5·18민주과장 여경희 ▲돌봄정책과장 남미선 ▲아동청소년과장 나하나 ▲외국인주민과장 정경록 ▲환경보전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설향자 ▲미래도시기획단장 정소라 ▲노동일자리정책관 임병우 ▲콘텐츠산업과장 나병우 ▲미래산업총괄관 백은아 ▲경제정책과장 백은정 ▲교육지원정책과장 장현정 ▲인재교육원 창의교육담당관 김광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윤미경 ▲수목원·정원사업소장 김희석 ▲역사민속박물관장 이부호 ▲일자리정책지원본부장 양보근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 이계두 ▲전안 안향진 ▲사회재난과장 봉현수 ▲신활력총괄관 박용수 ▲도시공원과장 주인석 ▲도로과장 서숙현 ▲교통운영과장 정도연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김경중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장 김용백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세행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난희 ▲대학인재정책과장 강신정

전남도 ◇3급(국장급) 승진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 ▲총무과(교육)과영호 ▲진도부군수 김미순 ◇3급(국장급) 전임 ▲정책기획관 손명도 ▲총무과(교육) 김선주 ◇3급(국장급) 전출 ▲여수부시장 정현구 ◇3급(국장급) 전보 ▲대변인 이상용 ▲에너지산업국장 유현호 ▲관광체육국장 최영주 ▲전남연구원(파견) 박현식 ▲총무과(교육) 조대정 ◇4급(준국장급) 전임 ▲기획홍보담당관 서형빈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병철 ◇4급(준국장급) 전출 ▲보성부군수 이상철 ◇4급(준국장급) 전출 ▲보성부군수 이상철 ◇강진부군수 김준철 ▲해남부군수 김병성

◇4급(과장급) 승진 ▲여성정책지원관 나은경 ▲안전정책과장 배준 ▲우주신산업과장 우삼식 ▲노인복지과장 이현숙 ▲토지관리과장 윤성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한가득 ▲자치경찰행정과장 김영준 ▲산단개발과장 양시봉 ▲농업기술원 차산연연구소장 김길자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 최덕수 ▲농업기술원 곤충암연구소장 조자옥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 최재은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김상권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신길호

▲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이유지 ▲보건환경연구원(파견) 박귀님 ▲국토교통부(파견) 이선호 ▲전남개발공사(파견) 조선희 ▲RISE센터(파견) 배용석

유치과장 이석호 ▲환경정책과장 배성진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국토교통부(파견) 이선호 ▲전남개발공사(파견) 조선희 ▲RISE센터(파견) 배용석

광주 북구의회 ◇5급 승진 ▲전문위원실 민종원

결혼

▲고(故) 배동열·박귀자씨 아들 대희군, 신경식(중흥그룹 전무이사)·김현미씨 딸 채원양=2026년 1월3일(토) 오후 12시30분 하우스오브드메르 신관 1층 지젤홀(광주 광산구 도천동 147-29), 062-228-0000.

부음

▲류정계씨 별세, 김현숙(광주 동구의원)씨 배우자, 류지혁·청은씨 부친상=발인 1일(목) 오전 8시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호(062-220-3352). ▲

장원석 제80대 여수경찰서장 취임



장원석(58·사진) 총경이 제80대 여수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장 신임 서장은 전날 호국 경찰관들의 높을 기리는 경찰 충혼탑을 참배하고, 경찰서 화합마루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장 서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사건 처리 중심에서 예방·대응·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 민생 위협 범죄 실질적 대응 ▲아이·청소년이 안전한 여수 만들기 ▲사고 예방 중심의 교통 치안 강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치안 실천 등을 강조했다.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직한 장 서장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장, 부산경찰청 중부경찰서장, 제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안보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박미영 제80대 해남경찰서장 취임



박미영(58·사진) 총경이 제80대 해남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해남경찰서는 30일 “전날 박 신임 서장이 청사 2층 호선당에서 각 과·계장, 관서장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감하며 힘을 돋주는 해남경찰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해남 출신인 박 서장은 2022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전남 생활안전과장, 진도경찰서장, 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최영수 제79대 무안경찰서장 취임



무안경찰서는 30일 “최영수(55·사진) 제79대 경찰서장이 전날 청사 4층 만남의장에서 각 과·장, 자구대·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과 교통사고·재난은 물론, 악성사기·마약·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안경찰 동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출신인 최 서장은 1997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직한 뒤 지난해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서울경찰청·충남경찰청 112상황실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무안=김상호 기자

남태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부임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자로 남태한 신임 소장이 부임한다고 30일 밝혔다.

남 소장은 1994년 국립공원 공단에 입사한 이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등 주요 국립공원과 공단 본사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며 공원 관리 전반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국립공원 관리 정책과 현장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무등산과 태백산의 국립공원 신규 지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단 안팎에서 공원 관리 정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태한 소장은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월출산국립공원에 부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월출산국립공원이 국민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전했다.

/주홍철 기자